

흔들리는 석화·철강...새 정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광주일보 73주년 제언

〈3〉 주력 산업 바뀌 위기 극복

전남 총생산 60%가 석유화학·철강
탄소 다배출에 회복 불가능의 위기
친환경·인공지능 산업으로 재편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특별법 시급

전남은 산업, 생산, 의료, 교육 등 대부분의 기반이 열악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나마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한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이 전남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전남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60%에 달한다.

석유화학, 철강산업 덕에 인구, 소득 등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지역발전도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전남의 '심장' 역할을 해왔던 두 개의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상태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위기로 두 산업을 친환경·고부가가치·인공지능 산업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다.

다행히 이달 초 정부가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한 숨 돌리게 됐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또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다배출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을 변화가 필요하다. 당장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다배출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제조업 중 탄소 배출이 두번째로 많고, 그 중 전남은 최다 배출지다.

결국 석유화학·철강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는 전남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숙제인 셈이다. 전남도는 구체적인 메가 프로젝트 추진안을 마련해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 과제를 국립의대에 이은 두번째 핵심, 현안 사업으로 올려둔 상태다.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에는 오는 2032년까지 여수 국가산업단지과 광양 익산산업단지, 순천율촌·해룡산업단지 일원에 사업비 24조 88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 투입과 함께 산업 재편을 위한 법률 등의 지원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우선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제정이 선행 조건이다. 정부가 석유화학과 철강과 같은 기간산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는 것이 골자



“지금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새롭게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광주 서구 영광동4거리에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특별취재단=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다. 정부가 나서 기간산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탄소 설비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사업 지원 근거도 법률을 통해 명시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연이은 적자로 기업 존폐가 걱정스러운 기간산업 기업들에게 행정, 재정, 금융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조세와 부담금 감면도, 탈탄소 지원금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게 전남도와 기간산업 기업들의 목소리다.

전남도는 우선 3조 887억원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석유화학을 '블루수소'와 같은 고부가 물질 생산할 수 있는 전환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미래차와 우주항공, 이차전지와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 소재개발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복안이다.

또 수십년이 지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바꿔 '화약고'라고 불리는 석화단지를 더욱 안전한 산업 현장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

'국립 탄소중립 융복합 실증단지' 조성, 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여수·광양만권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은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모도, 율촌, 영광군 등 서남해안을 아우르는 청정수소 에너지 벨트는 탈탄소와 함께 전남의 주력 기반사업으로 발돋움해 전남을 새롭게 뒤편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재명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게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

TK서 국민통합·균형발전 호소 “실용주의 관점에서 지지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민주당의 '힘'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울산광역시를 찾아 '국민 통합'을 앞세워 영남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가 발전·산업화의 중심지인 TK와 울산에서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내세웠다.

특히 이 후보는 지역이나 이념에 얽매지 말자면서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게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젊은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말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런 사실"이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끌어낸 공로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구 백화점 앞 유세에서도 "까만 고양이든 어떻게 빨간 고양이든 어떻게 노란 고양이든 어떻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색깔 따지고 연구 따질 여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포항 유세에서는 포항제철(현 포스코) 회장을 지낸 박태준 전 국무총리를 거론하며 "박태준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좋은 것은 다 써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라도 현실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바꿔서 써야 한다"며 "오로지 기준은 우리 국민의 삶"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보수 정당을 지지해 온 TK가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얼마 전 정구재 주필을 만났는데 '호남은 정치가 마음에 안 들면 정치인들을 버리지만, 영

남은 정치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른다'는 말을 하더라"라며 "저는 실제로 호남을 두려워한다. 얼마 전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제가 호남을 찾아 부탁까지 했는데 선거에서 졌다. 민주당을 혼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하면서 찍어주면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보지, 주인으로 느껴 보지 않는다면" "신상(세 상품)도 써 보시라. 써 보고 안 되면 다시 바꾸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진짜 보수'가 아닌 '반동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합의한 법률이 지켜지고, 초등학교에서 배운 상식이 지켜지는 합리적 세상을 꿈꾼다. 이런 게 진짜 보수"라며 "전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를 변호하는 정치세력이 보수가 맞다. 그들은 보수를 잠정하는 반동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홍준표 지지모임’ 회원들, 이재명 지지선언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전환' 등 단체 회원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통합전환'의 김남국 회장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봐도 보수가 아니다"라며 "헌법 기구에 의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당이 정상적인 당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며 "다행히 이 후보가 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 후보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 전 시장에 대해 "홍 전배님의 국가경쟁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

하고 전진하자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홍 전 시장 측 관계자는 "해당 단체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외곽 조직"이라며 "지지 선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캠프에 join(가입)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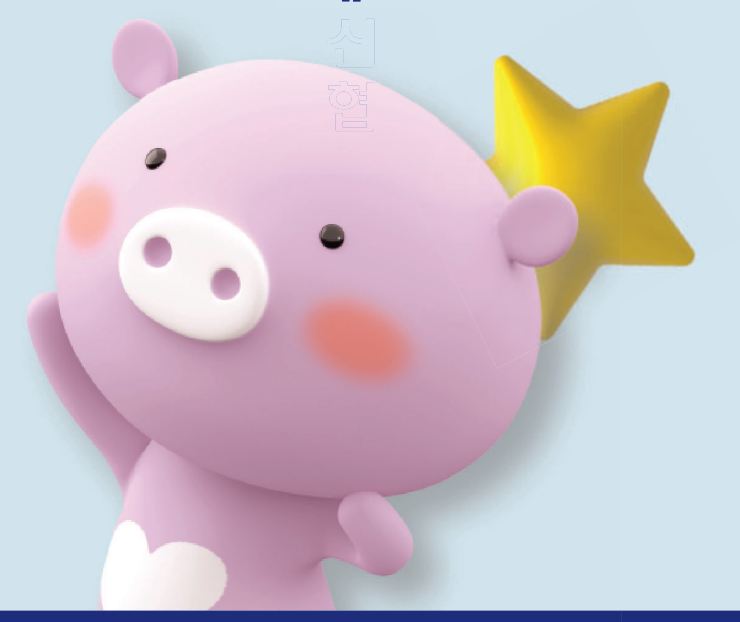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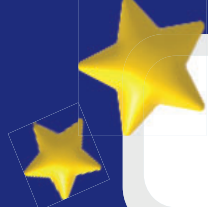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